

[남부경찰] 2013년 3월 9일 경찰채용시험 총평

■ 형사소송법 총평 이승준 교수

2013년 경찰1차 채용시험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조문과 판례의 비중도 반반을 유지했으며 판례문제는 최신판례를 많이 물어보았다.

다만 사례문제와 박스문제의 지문이 길어서 마지막에 형소법을 풀었다면 심리적 부담감으로 힘들었을 수험생도 있었을 것이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사고력이 발달되어야 한다. 응용문제가 2문제정도는 나오기 때문이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결국 수험생의 수준은 비슷해진다. 즉 당락은 시험 당일날 멘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혹시 이번시험에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OMR카드 작성에서 실수하였거나 시간이 압박해져서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아님 시험 중 자꾸 걱정이 앞서서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나? 이 모든건 멘탈의 문제이니 평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주 하시길 바란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시로 "나는 할수있다!"는 자기암시를 주는 것이다.